

## 도 서 관 상 호 협 력

- 장서목록을 중심으로 -

김 수 선 (부산대)

I. 서 론  
II. 조사의 대상과 방법

III. 조 사 내 용  
IV. 조 사 결 과

### I. 서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학술문화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모든 지식이 보다 더 전문화 되고 분업화되어 여기에 상응하는 다양한 기술정보와 문헌등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문헌과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매체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보다 폭넓은 정보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고 도서관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기존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최대 활용을 위하여 기존의 봉사방법과 새로운 협력방안이 병행되고 발전되어야 함이 시급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자료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협력방안중의 하나가 상호대차이며, 이러한 상호대차를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종합목록의 구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때 대규모 도서관에서도 장서목록조차 발간하고 있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도서관에서 장서목록에 대한 동일한 형태와 규칙과 구성양식이 모색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발간하게 되면 이것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장서목록을 토대로 한 국가적인 종합목록의 완성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의 목적은 협력방안의 일환책으로 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목록의 편성양식을 기초로 하여 그 구성체제의 각 사항별 통계에 의한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모색하고 또는 제시해 보고자 함에 있다.

## II. 조사의 대상과 방법

본 조사의 대상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 기관의 장서목록과 종합목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54개 기관의 목록집을 토대로 하여 각 기관별 장서목록의 발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장서목록 체제의 통일을 위해 목록의 각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의 대상범위와 내용은 정기간행물과 논문집 목록을 제외한 동양서(국내서, 일서, 중국서등)와 서양서 단행본의 목록집 52권과 그에 수록된 범례(凡例)와 색인을 비교 검토하였다.

〈표〉 장서목록 조사기관

〈 54 개기관대상 〉

| 구 분     | 기 관 수 | 비 율 % |
|---------|-------|-------|
| 국립대학    | 8     | 14.8  |
| 사립대학    | 5     | 9.2   |
| 도·시립도서관 | 16    | 29.6  |
| 특수기관    | 25    | 46.2  |
| 합 계     | 54    | 100.0 |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국립대학도서관에 포함시킴〉 〈특수기관: 시·도산하단체, 연구소, 국가기관등 포함〉

### III. 조사 내용

비교 검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서목록의 발간상황
- (2) 목록의 기술형태에 따른 Space 관계
- (3) 장서목록의 편성
  - ① 언어에 따른 수록구분
  - ② 분류의 편성
  - ③ 목록의 편성
    - ⓐ 표목의 선정과 편성
    - ⓑ 저자사항
    - ⓒ 표기법
    - ⓓ 배열관계
    - ⓔ 색인
    - ⓕ 기타(수록범위, 소장사항지시등)

### IV.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아직 장서목록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종합목록의 실현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더욱 난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기관의 소장사항을 수록한 장서목록이 모든 기관에서 각각 발간되어 진다면 이것을 한데 모아 전국적인 종합목록의 완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광범위한 정보자료원으로서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도서관 봉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상의 조사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은 각 관마다 장서목록의 편성이나 규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며 그 경우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전국적인 종합목록 완성의 전제조건은 편성과 기술사항의 통일에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장서목록을 통한 종합목록의 완성을 기대하려면 먼저 장서목록의 편성방법과 규정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일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장서목록의 조사 결과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장서목록 발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의 책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장서목록의 수록 범위는 각 기관에 따라 조절함이 타당하다.
- ③ 장서의 특성에 따라 전 도서관이 통일된 분류법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 ④ 목록의 Space 를 고려해볼때 임의 나열식목록형이 보다 효율적이다.
- ⑤ 언어에 따른 수록구분은 수록량의 조절을 통한 동양서와 서양서의 합본형태가 이용상 편리하다
- ⑥ 목록과 색인은 그 편성과 배열에 관한 하나의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다.
- ⑦ 색인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명과 저자로 구분편성하여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 ⑧ 표기법은 앞의 조사통계에 의한 일본어의 경우는 한문자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며 로마자는 「로마자 한글화 표기법」에 준하는 것이 이용상 편리할 것이다.
- ⑨ 기존의 규칙을 기초로하여 상호협력을 위한 도서관 장서목록의 새로운 규칙이 모색되어 진다면 장서목록의 발간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장서목록 발간시 고려되어져야 할 점을 몇가지 나열해 보았으나 이 조사는 조사대상의 발췌에 있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목록만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대상건수와 기관수등이 다양하지 못한 점으로 인하여 조사상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